

성령강림주일 대표기도문 (6일)

성령강림주일 대표기도문 (6일)

성령강림주일 대표기도문은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소중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성령강림절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절기입니다.

성령강림주일 대표기도문 1 -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누가복음 24:49)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강림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2천 년 전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시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강림주일 대표기도문 2 -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강림주일을 맞아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은혜에 마음 깊이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성령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어려움과 시련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등 여러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며,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강림주일 대표기도문 3 -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감당을 구하는 기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강림주일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되새기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님의 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시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듣는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충실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좋은 본을 보이고,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통일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강림주일 대표기도문 4 -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기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강림주일을 맞아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 단순히 능력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미워할 이유가 있어도 용서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뿐이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는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와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품이 되어,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진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하며, 세상에는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강림주일 대표기도문 5 -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기도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 12:4-6)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강림주일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을 되돌아보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는 성경을 가르치고, 지식의 말씀을 받은 자는 진리를 분별하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는 교회를 세우고, 병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는 아픈 자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은사를 무시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에 감사하며, 그 은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사를 사용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조화롭게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은사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치유와 회복, 소망과 위로를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강림주일 대표기도문 6 - 성령의 새로운 충만을 구하는 기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18)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강림주일을 맞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의 새로운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형식적이 될 때가 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를 때 성령님께서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성령님의 위로와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죄악된 생각과 욕망들을 물리치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예배가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령강림주일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불타오르게 하시고, 성령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싶으시다면 (새문안교회 영상 설교) (<http://www.saemoonan.org/Board/ListTV.aspx?vodType=1>)를 통해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